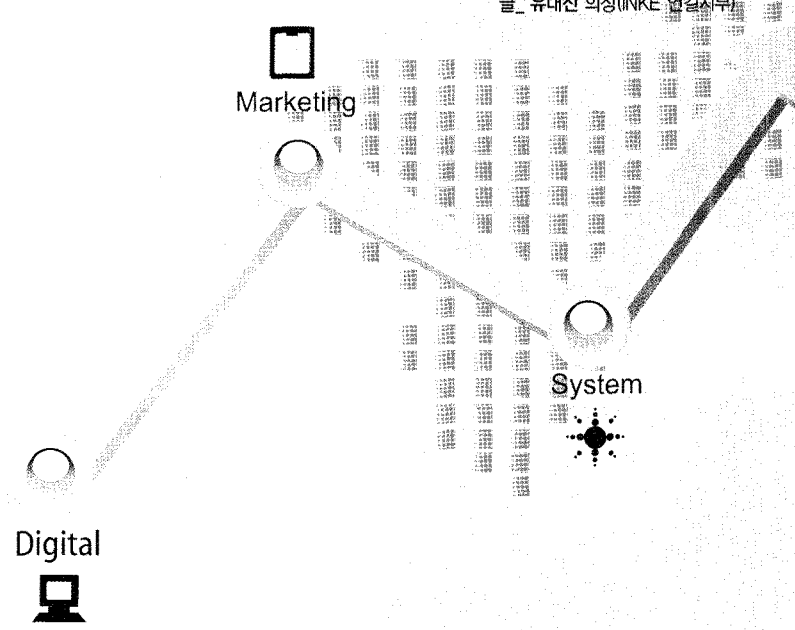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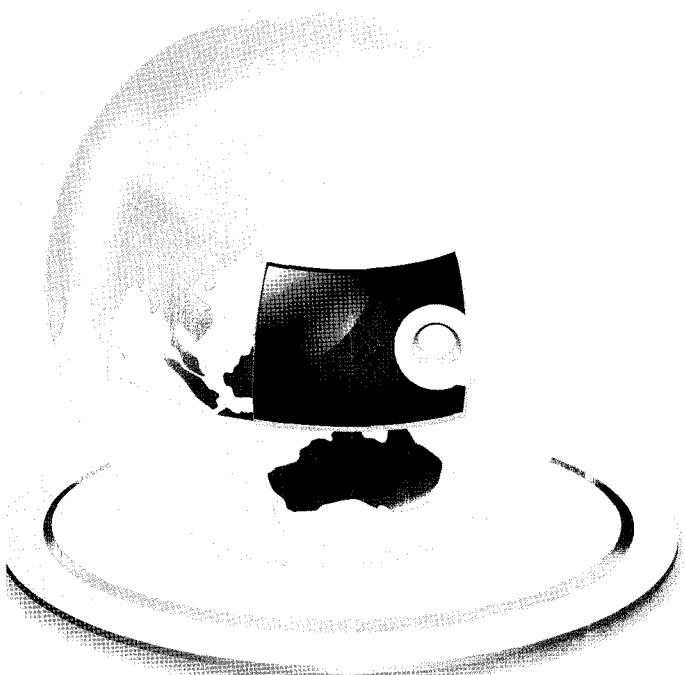


한중 IT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는 '연변'

전 세계 IT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또한 아직까지는 저렴한 인건비 부분의 이점을 생각하고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추후 중국 현지 시장이 바로 세계 시장임을 아는 기업들은 현지 공략을 하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친 후 진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은 그 과정 자체가 녹록치 않다. 어느 국가처럼 중국으로의 진출 시 기업들은 시간과 투자 방식, 사업 진행 방향, 현지의 IT 인프라 및 인력 고용 등 여러 가지 당면과제에 맞닥뜨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자금을 비롯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해외시장진출의 첫 번째는 바로 사업환경이 잘 정비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호에서는 중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IT 기업의 진출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진 연길(延吉)을 주제로 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살펴본다.

글_ 유대진 의장(INKE 연길지부)



한중 IT 전문도시로서의 장점을 가진 연길

우리에게도 익숙한 연변의 주도인 연길은 58%의 조선족과 42% 한족으로 구성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2개 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2개의 문화권을 공유하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업 진출이 보다 용이한 제 1의 장점을 갖춘 곳이 바로 연변주와 연길이다. 저렴한 인건비와 물가, 중국어를 몰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고 한국어로 보다 폭넓은 감정과 의사 전달이 가능해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플러스 요인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우호감 및 한국 문화의 일상은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에게 있어 최고의 장점이 된다.

실시간으로 한국의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즐기며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젊은 조선족 동포인들이 풍부한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개인별 IT 학습수준과 인프라가 뛰어나며 연길시의 IT 인프라 또한 타도시에 비해 상당히 우수하다. 연길시 인민정부의 전폭적인 기업 유치전략과 우수한 대학인 연변 대학과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포진하여 지속적인 인력 배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TM 전문 양성원도 이미 설립돼 한국어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현지의 우수한 조선족 IT 기업과의 업무 협의로 현지에 대한 정보와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 진행에 있어 상당한 메리트를 누릴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연길시 인민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마인드이다. 연길의



● 연결진출관련 웹사이트
www.china-itvalley.com
www.yanji-itvalley.com

경우 시(市)차원에서 시장 및 각계 담당자들이 비즈니스맨적인 마인드로 기업들에게 든든한 조력자로서 다가가 최대한의 사업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연결 IT 밸리 투자 유치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에 있어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한국 IT 벤처기업들이 연결 진출 후 경영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전문적인 인력의 교육시 교육비용의 50%~70%는 연결시 인민정부에서의 지원이 가능하여 기업에 맞는 전문 교육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기도 하다.

연변의 한중 IT 도시로서의 가능성

2008년 길림성에서는 장춘을 공업단지 도시로, 연길을 한-중 IT 도시로 명명했다. 이는 동북 3성에서 연길을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라 볼 수 있다. 연결시 인민정부와 연결시 IT 밸리는 성급 IT 단지로 명명받은 만큼, 시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중국 외곽 지역의 도시를 한중 IT 전문도시로 육성을 위해 뛰고 있다.

이를 위해 연결시는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 창구역할을 자처해 한국기업과 현지기업들과의 활발한 업무교류를 증대하는 한편, 행정·세무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 기업과 교육기관 정부의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 및 삼각 지원 체제를 확립해, 언급한 바대로 인력 지원 및 교육을 지원하여 관련기업의 비용지출을 최소화 하고있다. 또 연결시 인민정부와 연결시 IT 밸리 간 긴밀한 협조와 지원 아래 한국 IT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한중 양국 간의 IT 관련 사업 교류와 설립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은 현재 연결 NHN은 물론, 아사달과 심플렉스인터넷 등 한국 유수의 TM 업체들의 진출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외부에서

의 인재 유입이 이뤄지고 추가적인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부가적인 교육사업과 취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부에 나가 있는 우수한 조선족 인력들이 대거 연변으로 돌아오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연변의 발전 방향과 계획

연변주 인민정부와 연결 IT 밸리 투자 유치 관리 위원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IMC 와의 1만 명 직원 고용 MOU, 2차 IT 밸리 구축, 3차 TM 밸리 구축의 실현단계로 넘어가며 연변 서부 정보 선도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전문성을 지닌 대학들과의 분교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본의 유명 기업들과의 투자 협의를 통해 새롭게 부상 하는 IT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같은 동양권이며 정서적으로 비슷하기도 한 중국을 공략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콘텐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실정에서 당연한 진행 방향일 것이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의 엄청난 구매력과 가치 가공할만한 팽창을 보여주는 인터넷 관련 사업들의 발전 속도와 확산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춘 한국기업에는 최고의 먹을 거리이다.

동일언어 통용이라는 장점에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IT 벤처기업의 진출을 기다리는 특화된 한중 IT 도시 연변.

한국의 경쟁력 있는 IT 벤처기업들이라면 중국의 또 다른 한국인 연결을 발판삼아 뻗어 나가기를 연결시 IT 밸리 투자 유치 관리위원회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